

중남미 문화와 문화론

Contours of Latin American cultural theory

중남미 문화의 복잡성과 다양성

중남미라는 대상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론적인 접근일 것이다. 일찍이 헨슨(Hanson)이라는 과학철학자가 ‘관찰의 이론 의존성’ 이론에서 설파했듯이, 여행과 같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도 이론적 지평 위에 올려놓아야 비로소 의미가 명료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현대 중남미에서 전개된 문화론을 간략하게 논함으로써 중남미에 접근하는 일종의 준거 틀을 제시하려고 한다.

사건 중심의 역사 서술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연대가 둘 있다. 1492년과 1810년이다. 오랜 옛날부터 원주민(indio)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아스테카, 마야, 나스카, 잉카 문명 등을 일궈냈다. 그러나 1492년 콜럼버스의 ‘도착’으로 역사의 굴절을 경험하고,¹⁾ 1810년 독립이라는 커다란 변혁의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멕시코시티 중심부의 소칼로 광장을 둘러보면 이러한 시간의 성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중남미 도시의 중심부 광장이 대개 그렇듯이, 이 광장 정면에는 메트로폴리탄 성당이 자리 잡고 있다. 식민 시대에 세워진 이 성당은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 양식이 혼합된 건축물이다. 이 성당의 모퉁이를 돌면 문득 폭 꺼진 땅 아래로 유적이 눈에 띈다. 바로 1521년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에게 멸망된 아스테카 문명의 대(大)신전인데, 정복 이후 완전히 망각되었다가 1978년 전력 공사를 하던 인부가 발견했다.

대신전 유적지로 내려가, 사선으로 겹겹이 늘어선 담벼락(사실은 누차에 걸쳐 축조된 피라미드의 단층) 사이로 미로처럼 뚫어놓은 통로 중간쯤에서 서쪽을 향해 카메라 앵글을 들이대면 지표면의 웅장한 성당과 저 멀리 송신탑을 머리에 얹은 183미터 높이의 고층 빌딩, ‘라틴아메리카 타워’가 한 프레임에 들어온다. 지표면 아래의 원주민 문명 유적지, 식민시대의 유산으로 지상에 남겨진 기독교

1) 콜럼버스의 1492년 항해를 가리켜 흔히 ‘발견’이라고 한다. 그러나 ‘발견’이란 서구중심적 시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침략’으로 인식하고 있다(엔리케 두셀, 『1492년, 타자의 은폐』, 박병규 옮김, 그린비, 2011, p. 111). 서구인도 원주민도 아닌 필자는 중립적인 용어 ‘도착’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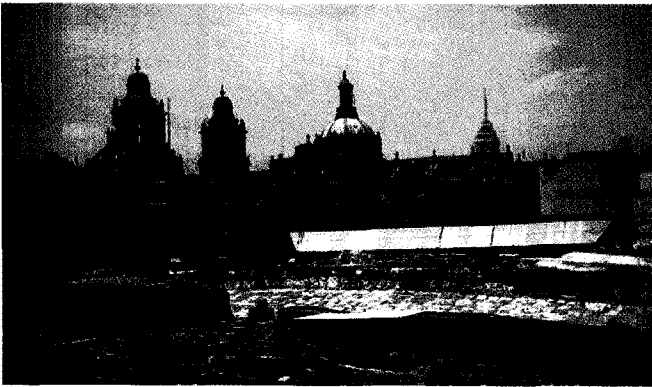


필자 : 박병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교수
by Park, Byong-kyu

박병규 교수는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중남미문학을 공부했으며, 멕시코국립대학교(UNAM)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남미 문화와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각국을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재를 결합한 지역연구, 문화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남미 문학, 카리브 해 지역연구와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저역서로는 『환멸의 세계와 매혹의 언어』(공저), 에두아르도 갈레야노의 『불의 기억』, 파블로 네루다의 『파블로 네루다 자서전: 사랑하고 노래하고 투쟁하다』, 엔리케 두셀의 『1492년, 타자의 은폐』 등이 있다.



멕시코의 대선전에서 바라본 '메트로폴리탄 성당'과 '라틴아메리카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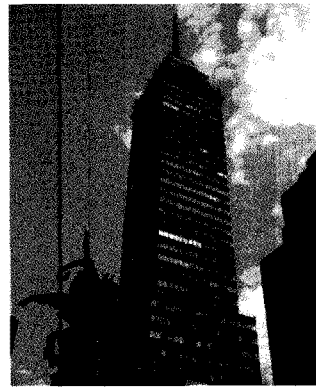
성전, 자본주의와 근대화의 상징처럼 하늘로 치솟은 고층빌딩. 이것은 중남미 역사가 공간적으로, 통시적으로 구현된 풍경이다.

역사라는 시간의 공간화·통시화란, 이미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의미이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은 고대 원주민문명의 유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의 치아파스, 과테말라의 산간지대, 페루와 볼리비아의 안데스 산맥, 칠레와 아르헨티나 접경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생존을 영위하고 있다. 식민시대가 남긴 유산으로서 가톨릭 종교, 스페인어·포르투갈어·프랑스어·영어, 아프리카 노예, 인종차별은 현재도 중남미 문화의 고유성을 대변한다. 그리고 19세기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근대화는 브라질리아라는 모더니즘 도시, 베네수엘라의 키네틱 아트, 멕시코시티의 토레 마요르(Torre Mayor), 파나마시티의 트럼프 오션 클럽(Trump Ocean Club)등 중남미 곳곳에 랜드마크로 구현되고 있다.

이런 복잡성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단순화의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인구 특성에 따라서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원주민의 영향이 두드러진 멕시코, 과테말라, 페루, 볼리비아, 둘째는 아프리카계가 눈에 띄는 브라질, 아이티를 비롯한 카리브 해 지역, 셋째는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이 인구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이런 지역적 특성이 문화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혼합문화론

중남미 문화를 혼합 문화, 다시 말해서 원주민 문화와 스페인(유럽) 문화의 혼합으로 보는 견해는 정복 이전에 고대 원주민 문명이 개화한 멕시코, 과테말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에서 두드러진



근거리에서 본 '라틴아메리카 타워'

다. 사실 이 지역에는 예나 지금이나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지만 19세기에 독립을 한 이후에도 원주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았다. 독립운동의 주역들은 크리오요(criollo)라고 부르는 백인(스페인계 후손)이었으며, 식민통치가 끝난 다음에도 원주민의 실질적인 지위향상은 없었다. 19세기말 근대화를 추진할 때도 원주민

을 미개와 야만의 대명사로 여겨 가능하면 사회정치적 현실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다. 일례로, 1900년 멕시코에서 라틴아메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멕시코의 독재자 포르피리오 디아스는 멕시코시티 요식업소 종업원을 모두 백인으로 바꾸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원주민을 보고 멕시코를 원주민의 나라라고 인식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뒤바뀐 기점은 1910년 멕시코 혁명이다. 혁명 이후 전 사회계층을 망라하여 명실상부한 국민국가를 건설할 책무를 맡은 엘리트들은 원주민을 국민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서 등장한 문화론이 '혼합(메스티소) 문화론'이다.²⁾ 이제 멕시코 국민은 원주민과 스페인계 후손의 혼혈인 메스티소 국가라는 것이다. 고대 원주민 문명과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동등하게 민족의 뿌리로 인정하려는 메스티소 문화론은 1920년대부터 멕시코 벽화 운동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전파되었다. 정부는 공공건물의 벽을 내주고, 리베라, 오로스코, 시케이로스 등은 고대로부터 현재는 물론 미래의 멕시코 역사를 그렸다. 당시 문맹률은 매우 높았으며,



199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과테말라 원주민 운동가 리고베르타 멘추

2) 김윤경, 「1920년대 멕시코의 메스티소화(mestizaje) 담론의 의미: 탈원주민화」,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0권 2호, 2009, p.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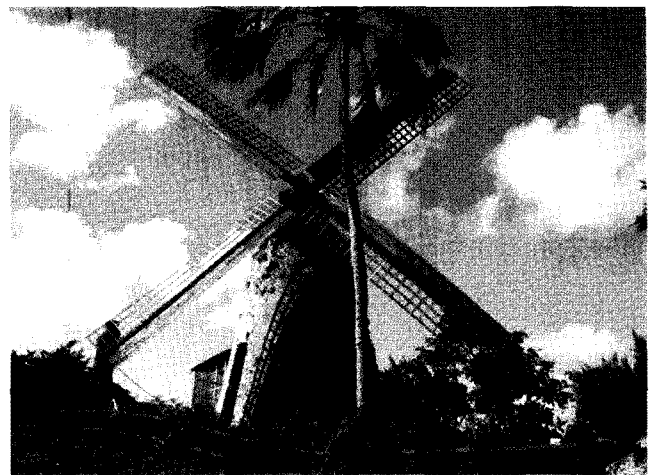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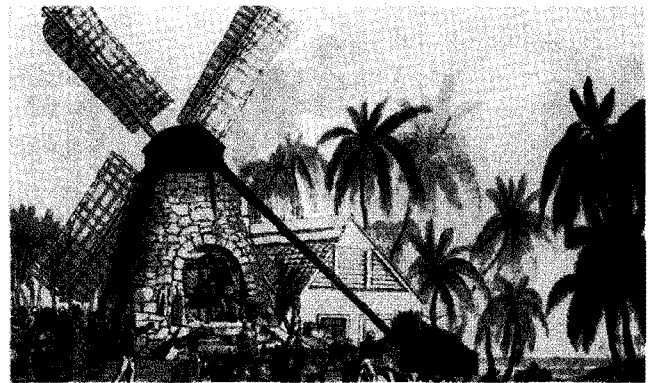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대형 건물의 벽에 그려진 벽화보다 더 좋은 선전매체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혼합(메스티소) 문화론은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메스티소는 엄밀한 의미로 원주민과 스페인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가리킨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원주민은 피정복자요, 스페인은 정복자였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메스티소는 피정복자의 편을 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정복자의 편에 서기도 어렵다.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중남미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데,³⁾ 바로 이러한 혼합 문화론의 내적 모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혼합 문화론은 이론적인 모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배제의 원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과거의 원주민과 원주민 문명을 상찬할 뿐, 아직도 궁벽한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원주민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지위 향상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이제 원주민들은 실천적인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테말라 원주민 운동가 리고베르타 멘추는 1992년 불과 28살의 나이에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1994년 멕시코 치아파스 주에서는 사파티스타가 봉기했으며, 2000년에는 에콰도르에서 정권을 봉괴시켰고, 2005년에는 볼리비아에서는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수 있었다.

네그리튀드와 크리올(Creole)론

카리브 해와 이 바다에 인접한 중미 및 남미 대륙, 브라질의 경우는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브라질과 카리브 해에 아프리카계가 많이 거주하게 된 역사적 원인은 식민시대 사탕수수 재배 때문이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맺어 세계를 양분하자 유럽의 신흥 강국으로 등장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은 호시탐탐 신대륙에 진출할 기회를 노렸다. 중상주의 시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는 국가가 공인한 해적을 카리브 해에 파견하여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실어오는 보물을 약탈하였는데, 이러한 카리브 해 해적의 본거지가 후일 네덜란드의 식민지(아루바, 쿠라사오 등), 영국의 식민지(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프랑스의 식민지(아이티, 과들루프 등)가 되었다. 식민지를 구축한 다음, 17세기 중반에서 19세기까지



식민시대 카리브 해의 제당공장의 과거(위)와 현재(아래)의 모습. 사탕수수 사이클은 지나가고, 고된 노역에 시달리던 아프리카계 후손만 남았다.

네덜란드는 브라질 동북부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했으며, 차츰 경작지가 카리브 해로 옮겨가게 되었다.

사탕수수는 재배와 수확에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원주민은 이미 멸절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노동력을 얻고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하였고, 이로써 식민시대 브라질과 카리브 해에



쿠바 문화의 혼합성을 표상하는 음식 아히아코. 옥수수, 감자, 고기 등 다양한 식재료를 첨가하여 몇 번이고 끓여먹을 수 있다.

3)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김영사, 1997, p.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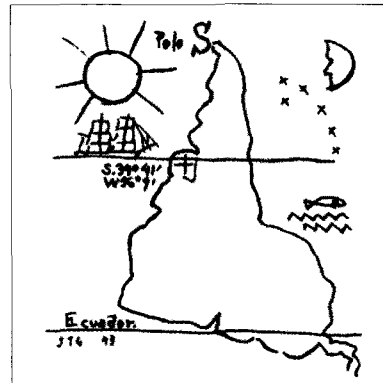
4) Eric Williams, Capitalism & Slavery, The University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NC, 1994, p. 169.

는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흑인노예가 실려 왔다.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사회학자이자 정치가는 에릭 윌리엄스(Eric Williams)는 사탕수수 재배로 가능했다고 주장한다.⁴⁾ 어쨌거나 카리브 해로 끌려와 희생당한 아프리카 노예는 서양이 자랑하는 산업혁명, 자본주의 발전, 근대화가 인류 역사에 드리운 깊은 그림자임에는 틀림없다.

카리브 해의 아프리카 노예는 결코 순종적이거나 무기력한 존재는 아니었다. 식민시대 내내 부단히 탈출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1804년에는 백인을 모두 몰아내고 현재의 아이티를 건국했다. 당시 미국 등은 흑인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티는 19세기 내내 서구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려고 갖은 노력을 경주했으나 국제사회의 기피 대상이었고, 20세기에 들어오면 세계 최빈곤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노예들의 꿈은 피어나기도 전에 국제적 봉쇄라는 찬바람에 시들어버렸다. 이런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아프리카 귀환 운동'과 아프리카의 문화적 가치를 긍정하는 네그리튀드(négritude) 운동이 시작된다.

카리브 해 마르티니크 출신의 시인 에메 세제르와 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의 레오폴 세다르 생고르가 주창한 네그리튀드 운동은 "반인종차별을 주장하는 인종차별주의"라는 사르트르의 신랄한 반격에도 불구하고⁵⁾, 전 세계로 이산되어 억압과 고통을 받는 아프리카인들의 심장에 깊게 아로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밥 말리(Bob Marley)로 대표되는 자메이카의 레게음악,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 아프리카계 쿠바인(Afro-cuban)의 음악, 브라질의 스포츠 카포에이라,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이나 폴 길로이의 문화이론에서 맥동하고 있다.

이에 반해 크리올론은 아프리카 기원을 강조하는 네그리튀드와는 달리, 현재 삶을 영위하는 이곳과 여기를 긍정하려는 문화론이다. 세인트루시아 출신으로 199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데렉 월코트(Derek Walcott)의 말처럼, 흑인들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프리카로 돌아가거나 유럽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땅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문화론이다⁶⁾. 그러나 쿠바와 브라질의 경우, 공식적인 문화담론은 흑백의 혼혈과 문화적 혼합을 강조하는데, 멕시코의 혼합문화론과 마찬가지로 국민통합 담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우루과이 화가, 토레스 가르시아의 / 중남미지도

히스패닉 문화론과 탈식민주의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는 유럽인 후손이 주축이 되어 건설한 국가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19세기 말부터 이탈리아, 스페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서 원주민과 흑인 노예 후손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소수 종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듯 이 지역의 문화론도 백인 중심이다.

19세기 중엽 아르헨티나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사르미엔토(Sarmiento)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대립적인 명제를 제시하고 아르헨티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문명이라고 주장했다. 문명이라는 서구적 근대화를 통해서 야만의 대명사인 가우초, 원주민, 시골, 후진성을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후일 사르미엔토는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을 비교한 글에서, 미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반면에 라틴아메리카는 후진 국가가 된 이유를 미개하고 야만적인 원주민의 존재 탓으로 돌렸다. 즉 미국은 원주민을 철저하게 배제한 반면에 중남미는 원주민을 포용하고 혼혈이 이루어진 때문에 사회적·정치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여성교',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의 작품.

5) Jean-Paul Sartre, "Black Orpheus," in *Race*, ed. Robert Bernasconi, Malden, MA, Blackwell, 2001, p. 118.

6) Derek Walcott, *Dream on Monkey Mountain and Other Plays*, Noonday Press, New York, 1992, pp. 10-11.

7) 박병규, 「아르헨티나 문화정체성의 형성파 보르헤스」, 《코기트》, 67, 2010, pp. 33-37.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는 논지였다.⁷⁾ 지금도 가끔 미국과 중남미의 격차를 얘기할 때, 사르미엔토류의 인종차별적인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1898년 미서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하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토팽창정책이 노골화되자 우루과이의 지성인 엔리케 로도(Enrique Rodó)는 『아리엘』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히스패닉 문화론을 주장한다. 미국은 앵글로색슨 문화를 대표하는 나라로 오로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반면에 중남미는 라틴족인 스페인의 전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예술적이며 고귀한 정신을 가진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히스패닉 문화론은 원주민과 흑인을 무시하고 스페인 식민통치의 유산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르미엔토의 근대화론이나 로도의 히스패닉 문화론은 유럽과 중남미의 관계를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주민과 유럽인의 관계에 주목한 혼합문화론이나 아프리카 후손과 유럽인의 관계를 천착하는 네그리튀드와는 사뭇 다른 이론적 입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엔리케 두셀(Enrique Dussel)의 해방철학이나 월터 미놀로(Walter Dignolo)의 탈식민주의(Decolonialism), 어느 면에서는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Néstor García Canclini)의 혼종문화론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모두 아르헨티나 출신인 이들은 하나같이 근대성(modernity)을 화두로 삼아 문화론을 전개한다.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면 유럽인데도 실질적으로는 중남미라는 유럽 변방의 이등 시민이라는 문화적 자의식에서 출발하여 중남미는 아직도 유럽 근대성의 폭력적이고 억압적 측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결론

지금까지 서술한 중남미의 문화론은 각각 자신들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통찰을 반영하고 있다. 중남미는 19세기 말엽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히 유럽과 미국을 모델로 삼아 근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비록 이런 과정은 '정치 불안', '경제 위기'와 같은 수식어에서 보듯이, 내외적인 여러 요인의 작용으로 결코 순탄하지 못했으나 현재도 중남미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결과가 실패라고 해서 그들의 지속적인 열망과 의지까지도 폄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평가하면, 중남미의 다양한 문화론은 지난 과거의 역사와 빛나는 미래의 희망 사이에서 현재의 위치를 설명하려는 중남미인의 실존적인 고뇌와 역사적, 인종적, 지리적 특수성에 대한 자의식을 담고 있다.

끝으로, 중남미 문화와 문화론은 결코 하나로 수렴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중남미 관련 담론은 '원주민'과 '혼합문화론'에 치우쳐 있다. 그 원인은 미국을 통해서 중남미를 접하거나, 아니면 멕시코 중심으로 중남미를 이해하기 때문일 것인데, 이제는 우리의 시각으로 중남미 문화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논의할 기회가 무르익었다. ■

참고문헌

- 가르시아 칸클리니, 네스토르, 『혼종문화』, 이성훈 옮김, 그린비, 2010.
- 김윤경, 『1920년대 멕시코의 메스티소화(mestizaje) 담론의 의미: 탈원주민화,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0권 2호, 2009, pp. 81-119.
- 두셀, 엔리케, 『1492년, 타자의 은폐』, 박병규 옮김, 그린비, 2011.
- 박병규, 『아르헨티나 문화정체성의 형성과 보르헤스』, 《코기토》, 67, 2010, pp. 29-53.
- 세제르, 에이메, 『식민주의에 관한 담론』, 이석호 옮김, 동인, 2004.
- 이성형,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민족주의』, 길, 2009.
- 헌팅턴, 새뮤얼,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김영사, 1997.
- Eric Williams, *Capitalism & Slavery*, The University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NC, 1994.
- Gilroy, Paul, *The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Verso, London, 1993.
- Sarmiento, Domingo Faustino, *Conflicto y armonías de las razas en América*, La Cultura Argentina, Buenos Aires, 1915.
- Sartre, Jean-Paul, "Black Orpheus," in *Race*, ed. Robert Bernasconi, Malden, MA, Blackwell, 2001.
- Walcott, Derek, *Dream on Monkey Mountain and Other Plays*, Noonday Press, New York, 1992.